다른 듯 닮은 듯 광주-대구에 내린 소통·나눔·기쁨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달빛소나기'에서 광주와 대구 참가자들이 단체줄넘기를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사진=영남일보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광주일보-영남일보 주최…'2016 달빛 소나기' 대구서 열려

광주·대구 청년 120명 참가

특강·공연 관람 등 친목 다져

대구의 명소 김광석 거리 등

문화거리 투어·맛집 탐방도

내년엔 광주에서 개최

광주와 대구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소통의 장(場) '2016 달빛소나기' 행사가 지난 25일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렸다.

'달빛소나기'는 광주일보와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후원한 행사로 광주·대구 청년의 유대 강화와 양 지역 간 상생의 가교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광주청년 40명과 대구청년 80명은 첫날 소통 프로그램인 '달빛소통'(달빛의 후예)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12개 팀으로 나뉘어 조를 이룬 뒤 팀 대항 팔씨름 대회와 단체줄넘기, 도미도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마음을 나눴다.

이후 '달빛나눔' 행사로 진행된 '멘토 특강'에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씨가 강사로 나서 '대중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뒤 자신의 삶을 들려줬다.

양 지역 공연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도 풍성했다. 대구지역 공연팀으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치어리더팀 '블루팅커스'와 남성중창단 '아르스노바'는 각각 댄스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광주를 대표하는 '빅맨 싱어즈'가 팝페라를, '빅사이즈크루'가 힙합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대구 참가자 김민정(여·22)씨는 "예술·문화활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겨 뜻깊다"며 "내년에 열릴 광주행사에 꼭 참가해 다르지만 비슷한 두 지역의 문화를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유여행 형태로 대구 문화거리 투어가 진행됐다. '김광석거리'에 모인 청년들은 자연스레 삼삼오오 짝을 이뤄 근대골목거리를 거쳐 대구예술발전소까지 이동했다.

대구 참가자들은 지리를 모르는 광주 참가자들을 안내하며 지나는 골목 곳곳에 숨겨진 맛집을 직접 데려가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남겼다.

문화거리 투어는 양 지역 청년들의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냈다.

쇠락해가던 인근 '방천시장'이 김광석거리 조성으로 대구의 관광명소로 거듭난 과정을 보며 '1913 송정역시장'과 '대인예술시장' 등을, 선교사들이 모여 살았던 근대골목거리에서는 자연스레 광주 양림동 근대골목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광주 참가자 고유한(24)씨는 "문화거리를 돌아보니 광주와 대구가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번 인연으로 인해 서로의 창작, 예술활동에 조언과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 행사는 매년 광주와 대구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내년에는 광주에서 열린다.

/대구=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달빛소나기' 참가자들이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지역 공연팀 무대를 보며 환호하고 있는 참가자들.

지난 26일 '달빛소나기' 참가자들이 대구 김광석거리를 둘러보고 있다.